

[우리회사 소개 : 남양유업편]

乳兒食을 主力商品으로



천안공장전경 원내는 홍두영 대표이사

1. 개요

1964년 3월 13일,

이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유업체 남양유업이 탄생한 날이다.

“우리 아기는 우리가 만든 분유로 건강하게 키우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출범한 우리 남양유업은 이땅에서 판을 치던 외국산 분유를 몰아내고 2세 건강 및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우리나라 분유업체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지리적 여건, 시설,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낙농과 유가공업의 불모지로 일컬어지던 우리나라에 최초의 민간기업인 “남양유업”의 설립은 그야말로 일대 혁신이 아닐 수 없었다.

유가공업의 선구자로서 충청남·북도 및 경기도 일원에 집유망을 설치하고 유제품 생산 원료의 주공급원인 축산 농가의 직접·간접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나이가 축산진흥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올해로 창립 스물두돌!

22살의 청년기에 들어선 우리 남양유업의 감회는 더욱 새롭기만 하다.

22년 전, 중소기업 형태로 출범한 남양유업이 소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제는 자본금 30억 원에 연간 매출목표가 1200억 원을 웃돌아 상반기 결산 상장기업중 외형대비 80위권에 랭크되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이제 지난 22년을 돌아보자.

2. 연혁

1964년 3월, 남양유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65년 11월에 천안공장을 완공하여 1967년부터 유아용 조제분유 및 무당연유 라일락생산을 개시, 남양유업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1972년 3월에는 멸균시유인 남양밀크를, 1977년 12월에는 특수유산균발효유 남양요구르트를 생산, 시판하기에 이르렀다. 1978년에는 기업을 공개하여 상장회사가 되었으며 같은해에 국민건강과 축산진흥발전에 크게 기여한 홍두영 남양유업 대표이사가 “철탑 산업훈장”을 수여 받았다. 1979년 8월에는 백색, 딸기, 초코, 바나나 우유등의 멸균 가공유를 생산하였으며 1980년 2월에는 충남 공주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제2공장을 완공하여 최신설비 및 최고권위의 연구 시스템을, 1984년 6월에는 유산균 음료인 “남양 써핑쿨”을, 1985년에는 소화력이 약한 어린이를 위한 분유 “남양호프”와 종합영양이유인 “남양이유밀”을 개발 시판함으로서 국민 건강에 필요한 모든 유제품을 갖추고 명실공히 유업계의 선두주자로서 기반을 굳히고 있다.

3. 제품소개

남양유업의 낙농제품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조제분유인 남양분유 S-100과 젖 빨무렵부터 3~4세까지 먹이는 “남양점프”는 그 품질의 우수

성이나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국내 정상급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남양유업의 조제분은 시장 점유율은 78%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꾸준히 생산공급하여 온 남양유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밖에 설사및 구토를 하는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 “남양호프”종합영양 이유식인 남양 “이유밀” 모유나 분유를 공급하기 어려운 미숙아(제태기간 37주미만, 체중 2.5kg이하)를 위한 미숙아분유, 남양 전지분유 등도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믿음직한 제품들이다.

한편, 평균 유지방 함량이 3.4%이상의 신선한 원유만 사용하는 남양 3.4%우유는 1982년 브랜드 개칭과 더불어 그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 유산균 발효유 남양 요구르트는 독특한 맛과 우수한 품질로 애음가로부터 호평을 받는 우수한 제품이며 유산균음료인 남양 써핑쿨은 1985년 6 월개발, 시판된 이래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4. 임직원의 협동과 노력

남양유업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충청남도 천안과 공주 두곳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주요 도시에 7개의 영업소와 200여개의 대리점을 두고 1300여 임직원이 “화목·협동”이라는 사훈아래 각 사업장에서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한편, 회사에서는 임직원의 복지후생사업으로 공장내에 식당, 휴게실, 목욕탕 및 각종 체육시설, 오락시설, 도서실등을 갖추고 있으며 주택자금 융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혜택을 제도화 하고 있다.

5. 대 소비자 활동 및 기업이미지업 행사

남양유업은 소비자를 위한 활동도 다양하여 항상 소비자와 함께 하는 기업으로 모범이 되고 있

다. 남양유업 회사내에 자체 “육아상담실”을 운영하여 유아의질병, 건강상식, 이유등의 육아상담을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각종 육아책자및 팜프렛을 발간, 배포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또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전국의 가임여성과 산업체 근로 여성을 대상으로 “1일 가족계획교실”을 운영 범국가적인 계몽행사를 실시하였으며 2세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 우량아 선발대회도 실시하여 왔다.

또한, 매월 미혼여성및 주부들에게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다양한 주제토론과 국내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알찬 강의내용으로 여성들의 평생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남양 다이제스트”라는 소아과 전문 잡지를 발간하여 새로운 의학자료를 제공, 유아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 기업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다.

6. 제 2 의 도약을 위하여

우리나라 유가공업계의 선구자로서 국민보건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세로 자부심과 궁지를 바탕으로 일하고 있는 남양유업은 지난 22년의 꾸준한 연구개발 및 기술축적으로 우수한 유제품 생산에 앞장서 왔으며 테트라 팩의 자동 멀균포장 시스템, 가스충전 시스템등 현대적인자동 생산 설비와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갖추어 위생적이고 완벽한 품질관리를 유지하는 한편 신제품의 개발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남양유업은 결코 자만하지 않고 회사와 축산농가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돋독히 하여 축산농가의 이익에 기여하고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유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국내·유업계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지켜 나감과 동시에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나아가 건강사회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

※ 이번호부터 실계된[우리회사 소개] 순서는 그 순에 의한것이나 전국대 유처리장의 사정에 따라 남양유업부터 실계 되었음을 밝혀 듭니다.